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32.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2013. 08. 1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은 계시록 7장에 계시된 사실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1. 지닌 시간에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사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7장에 예언된 사건을 공부할 차례인데, 7장에 일곱째 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요.

답: 예, 일곱째 인은 8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대로 6장의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입니다.

2. 예, 이 말씀에 표상적으로 예언된 사건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해주시지요.

답: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읽도록 하지요.

[계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후에는 6장의 계시를 보여 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이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표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표상할 때 사방이라는 말을 쓰지요.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쓴 것인데, 이사야서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11: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예, 여기 땅 사방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사는 세상 전체에서 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방을 우리 번역에 네 모퉁이라고 했는데,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0: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방이라고 번역한 말이 7장 1절에 네 모퉁이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라고 했는데, 바람은 표상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설명한 말인데요, 성경구절을 찾아보지요.

[렘49:36~38]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바람이 재앙, 곧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요. 이 말씀 외에도 구약성경에 바람이 전쟁을 표상하는 것으로 묘사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바람을 붙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한 것은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땅은 계시록에서 표상적으로 바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입니다.(계17:15) 대체적으로 유럽 대륙을 나타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마리 짐승이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나왔지요. 그것은 인구가 많은 유럽 지역에서 전쟁으로 제국이 성립되는 것을 표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땅은 아직 개척이 덜 된 미주를 뜻합니다. 나무는 백성의 지도자를 표상합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큰 나 무를 보았는데, 그것이 왕을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다 표상적으로 설명을 해도 결국은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재난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계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 바람을 붙잡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이 인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람을 붙잡는 것이 재난이나 전쟁을 이용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니 바람이 전쟁이나 재난을 상징한다면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을 잡아 붙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인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나 재난이 인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전쟁이나 재난이 바로 인치기 위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런 때에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치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4. 성경에나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지요?

답: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삼상 23:24~28 절을 읽어봅시다.

[삼상23:24~2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흑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던라 27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다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산을 사울의 군사들이 포위했습니다. 다윗이 피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침노하게 함으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침노한 전쟁으로 다윗을 체포하려는 사울의 바람을 붙잡게 한 것이지요.

5.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바람을 잡아 주셨군요. 바람을 잡는다는 것을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핏박의 바람을 잡아 준다는 쪽으로 생각을 못했네요. 여기 기록한 다윗의 처지를 보니 아주 딱 맞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인지요?

답: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아마도 다섯 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개혁세력을 억압하려고 할 때마다 외국에서 독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핏박의 손길을 펴 수가 없었지요. 전쟁해야 하니까요. 핏박의 손길이 멈춘 동안 개혁 운동은 발전했고, 그렇게 다섯 번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압박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군인을 모집하는데 개혁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일에서 개혁세력을 합법화하게 되었지요. 전쟁으로 핏박의 바람을 잡아 준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6.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당연하지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루터의 개혁 운동을 박해하려고 할 즈음에 다섯 차

례에 걸쳐서 프랑스와 터키의 침공이 있어서 독일 황제 찰스5세가 루터의 개혁 운동을 저지할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번의 전쟁은,

1521년부터 1526년까지 프랑스 왕 프란스 1세의 침공.

1527년부터 1529년까지 프랑스 왕이 교황과 결탁해서 독일을 침공.

1536년부터 1538년까지 프랑스 왕이 터키 황제와 동맹하고 침공.

1542년부터 1544년까지 프랑스가 터키와 동맹하여 다시 침공.

또 터키 황제 술리만 1세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려고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습니다. 독일 황제 찰스 5세는 이것들을 격퇴해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루터의 개혁 운동을 힘을 다해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군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개혁파를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혁파들을 압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혁파들은 1531년 12월에 슈말칼덴(Schmalkalden)에서 회합을 하고 슈말칼덴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1532년 봄에 터키 황제 술리만 1세가 다시 침공하였습니다. 독일 황제는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렘버어그에서 개혁자들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개혁자들도 독일 황제를 도와 터키 군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개혁 운동은 확산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종들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바람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을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루터의 개혁 시대를 보면 개혁자들을 핍박하는 바람을 전쟁을 통하여 잡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바람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과 백성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바람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는 방법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입니다. 루터 시대는 프랑스와 터키가 독일을 침입하는 전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바람을 잡으셨습니다.

7. 목사님, 루터 시대의 사건을 보니 아주 정확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 그냥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바람을 잡으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그것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면, 전쟁을 하도록 두심으로 핍박의 바람을 잡으시고,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핍박의 바람을 잡는 것일 때에는 전쟁의 바람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간에 바람을 잡아 인치는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여섯째 인 사건에서 마지막 사건이 굴과 산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부르짖으며 어린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외치지요. 그 외침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람은 불들어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계7:2,3]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은 이미 설명한 셈입니다. 바람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지요. 인치는 기간 동안 이 세상은 대체로 평화롭겠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겠지요. 세상은 환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잡아주는 동안 생명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아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답: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살전5: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그런 표현이 있지요.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홀연히 멸망이 이르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한 기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바로 바람을 잡아주는 기간인데, 바람을 잡아주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람들이 모르지요. 어영비영 지나다가 홀연히 멸망이 이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바람 잡아주는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을 맞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을 맞아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핍박과 환난의 바람을 잡아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9.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라디오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 일까요?

답: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모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7장에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만 말하고 그 인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 그러나 “인”의 헬라어 “스프라기다”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에 소유권이나(엡1:3), 보증(고전1:22)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대조가 되며 이 인을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호나 안전을 보장받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인 맞은 자들이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인 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장을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 인이 나왔으니 이야

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7장에는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고, 14장에는 인 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으니 인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이지요. 곧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 그렇겠군요. 그런데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두 이름이 찍힌 것입니까?

답: 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같은 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지요.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마태28:19을 읽어봅시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으로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보다가 이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삼위일명이 더욱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일체”의 의미는 존재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성경적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존재성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은 바로 존재성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11. 왜 이마에 그 이름을 인칠까요? 무슨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답: 당연히 깊은 의미가 있지요. 성경 사상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저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제가 실제로 간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품성과 속성 및 그분의 전 신격이 담겨 있으며 또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외에도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이나 저나 목사님도 이 이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 이름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12.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도록 바램을 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